

스포츠동아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sportsdonga.com 10판

글로벌 트위터 '최다트윗'...SNS까지 삼킨 방탄 ▶13번

방탄소년단은 올해 전 세계 트위터 계정 중 가장 많이 트윗(언급)된 계정으로 조사됐다. 멤버 정국을 놀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37만 건의 리트윗(공유)과 77만 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받아 올해 가장 관심을 끈 '골든 트윗'으로 꼽혔다. 세계 음악시장을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트위터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보상선수 포기 붐...FA등급제 열리나



채태인, 최준석, 이대형(왼쪽부터) 등 보상선수 유출이 필요없는 '알파 프리에이전트(FA)'가 한꺼번에 등장했다. 1999년 FA 제도 도입 후 전력평준화에 발목을 잡았던 보상선수 제도는 각 구단의 새로운 선택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넥센 채태인 이어 롯데 최준석 kt 이대형까지 구단들, FA 선수들 이적 걸림돌 보상권 포기 "전력평준화" 환영 속 FA 제도 전면 개편 기대 KBO 새 총재 임기 시작면 본격 공론화 전망

1999년 KBO리그에 도입된 프리에이전트(FA) 제도는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큰 틀에서 볼 땐 별다른 변화 없이 19년 동안 유지돼왔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상선수 규정이다. 타 구단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100억원 계약을 맺더라도, 연봉 1억원에 사인하더라도 보호선수 20명 외 보상선수 1명을 내줘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다. FA를 뺀 구단은 '직전연도 연봉의 200% 보상금+보상선수 1명' 혹은 '연봉의 300% 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상선수를 통한 전력보장을 선택했다.

메이저리그는 스몰마켓 팀 보호, 전력평준화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위해 세밀한 FA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프로야구 역시 연봉을 기준으로 FA선수 등급제를 실

시해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KBO는 FA 자격을 획득한 타 구단 선수를 영입할 경우, 똑같은 보상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런 까닭에 FA 제도가 전력평준화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상급 FA 선수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2017 스토브리그에서 FA 제도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각 팀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도를 손보지 못했지만 구단 스스로 새로운 변화의 문을 열었다.

먼저 넥센이 지난달 중순 'FA 채태인이 타 팀과 계약할 경우 보상선수를 지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채태인의 이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과 선수단 규모를 경량화 하고 있는 넥센의 방향이 접점을 이루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당시 신선한 발상으로 평가됐지만 타 구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롯데가 FA 최준석과 이우민에 대해 채태인처럼 보상선수를 지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kt도 5일 이대형을 똑같은 조건으로 시장에 내보내기로 하면서 트렌드가 형성

된 분위기다.

보상금은 채태인(연봉 3억원), 최준석(연봉 4억원)이 각각 9억원과 12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지만 선수 스스로 이를 새 연봉협상에 반영한다면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올 시즌 FA 시장 개장 이후 강민호(4년 총액 80억원·롯데→삼성), 손아섭(4년 총액 98억원·롯데 잔류), 민병헌(4년 총액 80억원·두산→롯데), 황재균(4년 총액 88억원·샌프란시스코→kt) 등 대어급 계약이 성사된 뒤 이렇다할 '준계약 FA'의 이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FA 시장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더욱이 넥센, 롯데, kt 3개 팀이 사실상 FA등급제를 먼저 실천하면서 제도의 전면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KBO 역시 부의부빈의빈 현상이 심각한 현 FA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KBO 관계자는 "일부 치솟는 FA 몸값이 팬들에게 괴리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전력평준화 역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단과 KBO 모두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FA 등급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새 총재 임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스포츠 레전드들과 함께 하는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

핸드볼 윤경신, 배드민턴 이용대, 유도 김재범... 강원지역 초등학교 방문해 경기 노하우 전수

"내가 꿈꾸고 동경하던 스타에게 직접 배운다." 스포츠동아가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레전드 초청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을 진행한다.

국내 정상의 종합 레저기업으로 그동안 지역 스포츠 인재육성에 힘써온 강원랜드와 함께 실시하는 '스포츠 꿈나무 교실'은 한국 스포츠를 빛낸 여러 종목의 레전드 스타들이 강원 지역 초등학교 체육선수들을 방문, 경기력 향상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별 밀착 레슨을 진행하는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레전드 스타들은 풍부한 경기 경험에서 우러난 다양한 실전 노하우 전수와 함께 선수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이겨낸 경험을 알려줍니다. 또 운동 선배로서 후배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는 멘토링 시간도 마련해 한국 스포츠의 차세대 스타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에 참여하는 스포츠 스타들은 국민들에게 베푼 승전보로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주인공들입니다.

국가대표 250회 출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5회 수상에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8회 등극 등의 화려한 기록을 가진 핸드볼의 윤경신, 2008베이징을 리픽 금메달과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딴 배드민턴의 이용대,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을 수상한 유도의 김재범, 2004아테네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2008베이징을 리픽 당시 불굴의 투지로 깊은 감동을 준 역도의 이배영,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컴퓨터 세터' 신영철, 2000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김경훈 등이 참여합니다.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은 스포츠동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 일정 : 2017년 12월~2018년 1월
- 대상 : 강원 지역 초등학교 운동부
- 주최 :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채널 dongA.com
- 주관 : 스포츠동아
- 후원 : 강원랜드

뉴스디자이너 김민정 기자

소문 그대로 대박행진!!

jtbc ● YTN mbcn MBC Drama MBC SPORTS+ SBS GOLF ● CGV

성경만두 프랜차이즈 CF 방영중

오직 만두전골 하나로 대전지역 맛집으로 시작하여 월 매출 7천만 원, 연 8억 원대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성경만두 - 포스 단말기의 월매출을 당당히 공개할 만큼 소문 그대로의 놀라운 매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맛집 성경만두요리전문점

“한 번도 안드신 고객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신 고객은 없다는 소고기사브를 가미한 수제만두전골 메뉴 「하얀전골」”



열린 육수가 완성 「빨간전골」

수제만두의 정직한 맛과 품질, 독창적 메뉴개발이 성공비결!

- 맛이 최고의 경쟁력 정성과 손맛이 정직한 맛은 입소문 나게 됩니다. 대전지역 최고의 맛집.
- 백문이 불여일견 단 한 번의 매장 방문과 사식으로도 성공을 확신하며 브랜드의 지부임을 느낍니다.
- 본점의 맛 그대로 공급 본점 성경만두와 손만두와 칼칼이 김치의 신선함까지 그대로 불류공급.
- 성공신화의 노하우 전수 배움에서 대박 성공까지 오직 맛으로 정면승부! 그 성공노하우를 전수.
- 원스톱 실천 창업컨설팅 와식업종 대비 가성비 최고의 실속창업, 창업자금 대출 까지 원스톱 지원.
- 높은 대중성, 높은 마진을 남녀노소, 화식, 모임까지 대중적 메뉴, 계절과 무관, 높은 마진율.

NAVER 성경만두프랜차이즈 dnm 성경만두프랜차이즈

전국 가맹점 김천 학산점 / 서울 양사점 / 분인 동백점 / 광명 소하점 / 서울 성수점 / 시흥 정왕점 / 평택 소사점 / 매 장 동인 에버랜드점 / 화성 화남점 / 의왕 조양점 / 서울 내곡점 / 안양 평촌점 / 구미 인동점 / 대전 송촌점 / 대전 용산점 / 대전 둔산점 / 대전 현충원점 / 군산점

성경만두요리전문점 창업문의

1588-1435